

## 시드니의 시민을 배려하는 안전

정 현 찬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부장

우리 나라의 가을은 어디 갔는지, 11월 초인데도 한겨울 같은 날씨에 떨고 있는 나뭇잎이 안쓰럽기만 하였다.

이를 뒤로하고 우리는 호주로 떠났다.

미국 DuPont의 안전관리기법이 잘 도입되어 있는 호주의 안전을 배우기 위해서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을 처음 맞이하는 것은 날씨였다.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닐 정도로 덥지도, 춥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늦여름과 같은 날씨였다.

또한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 호주의 첫 인상은 좋았다.

잠시 후 뒤따라온 DSR (DuPont Safety Resource)이재우 부장이 도착하여 모두 5명이 된 우리 일행은 DuPont에서 준비해 준 르네상스 호텔까지 봉고와 흡사한 택시로 이동하였다.

차창 밖의 건축물 양식, 가로수, 사람들은 호주의 도시 풍경을 대변하는 듯 낯설게 느껴졌다. 더 낯설었던 것은 차량이 도로의 좌측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측통행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불안한 느낌마저 들었는데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였다.

숙소인 르네상스 호텔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Check-In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만날 수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오페라 하우스는 우리의 앞에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건축기간이 20년인데도 최근의 건축물과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안전성과 예술성에서는 앞서고 있었음을 느끼게 하였다.

시드니 항구에서는 관광을 위한 배가 운항되고 있었는데, 코스는 30분에서 1일 코스로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짧은 시간이 허락되는 코스를 선택하고 배에 올랐다.

배에서 보는 아름답고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와 Harbor Bridge의 웅장한 아치의 위용에 놀라움과 감탄이 절로 나왔다. 과연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란 느낌이 들었다.

배가 부두에 도착할 때마다 호주인들의 안전의식을 접할 수 있었다. 2~3명의 승객을 태우더라도 이들은 반드시 배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도록 정박하였고, 이동용 구름 다리를 준비하여 유모차를 끌고도 안전하게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교육장이 있는 North Sydney로 이동 DuPont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DuPont의 단위 사업장에서는 안전문제를 총괄적으로 Consulting하는 Program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배운 STOP은 12단계의 Consulting Program 중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다.

지금은 시대의 관심사로 부각된 Ergonomics의 기준과 예방 및 관리기법에 대비하여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중 최근 Take Two라는 Program을 개

발, 작업 전 2분 안전교육 영상물을 각종 작업조건에 맞게 제작 보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끌렸다.

이러한 시스템을 접하고 나니 우리 협회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조급함이 밀려옴을 느꼈다. 그 순간 가슴 한 쪽이 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무엇일까.

숙소와 교육장소까지의 이동수단은 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 서울에서 보지 못한 것이 이곳에 있었다.

우리 일행은 안전을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인지 호주 사회의 안전시설에 대해 나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다.

Hotel에의 비상구는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안내되어 있었다. 또한 소방 호스는 드럼형으로 비상시 누구든지 콕크 벨브를 열고, 소방호스를 잡아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다. 이러한 시설은 호텔뿐만 아니라, 지하철, 배 등 공공장소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예정된 교육을 마치고 Harbor Bridge 등반에서 호주인들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었다.

Harbor Bridge는 아치형으로 그 길이가 1,149m, 높이가 해발 141m나 되는 높은 교량으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교량이었다.

이곳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아치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보기만 해도 매우 위험해 보였다. 하지만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보고는 이러한 우리의 불신은 갈끔히 사라졌다.

12명 한 팀으로 10~1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데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곳곳에 안전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응급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출발전에는 사전 안전교육 및 체험실습을 하고, 안전모, 방한복, 안전대,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고 등반하게 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안전인으로서 국내 산업안전에 산재된 문제를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MF 지원 체제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며, 2002년 월드컵에서 신화는 우리 국민의 저력인 것을 볼 때, 지금은 선진 안전기법이라고 우리가 찾아 갔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 여행이었다. 

